

2015.12.2 - 12.28



국립극단  
SINCE 1950

가을아당

# 시련 THE CRUCIBLE ARTHUR MILLER

교육자료

(재)국립극단에서 관객들의 효과적인 연극 감상을 위해 제공하는 교육자료는 작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으며, 공연 관람 후 그룹 토론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됨.

# 시놉시스

**“그건 내 이름이니깐요! 내 평생에 다른 이름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요!”**

1690년대 청교도 이념이 지배하고 있는 폐쇄적인 마을 세일럼. 패리스 목사가 소녀들이 숲 속에 모여 은밀하게 주문을 외우며 춤추는 광경을 목격한다. 그 소녀들 중의 한 명인 패리스 목사의 딸 베틀이 악마에 사로잡힌 것 같은 이상 징후를 보이자 온 마을이 악마, 마녀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히며 술렁인다. 마녀의 정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세일럼을 찾은 헤일 목사와 댄포스 부지사가 소녀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판을 시작하자, 건잡을 수 없는 마녀사냥이 마을 전체로 번져나간다. 주민들 간의 해묵은 원한과 증오가 악마의 사주라는 명목으로 변질되어 서로를 지목하게 되면서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는다. 이 혼란 가운데 아비게일은 자신과 간통을 저질렀던 사랑하는 프락터를 차지하기 위해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를 마녀로 고발한다. 자신의 명예와 진실 사이에서 고뇌하던 프락터는 아내를 지키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람들 앞에 나선다.

## 주요 등장인물

### 프락터

**‘하나님, 전 누구니까? 존 프락터는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정직하고 모범적이며 바른말 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존경받는 농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질을 탐하는 패리스 목사와 반목하는 사이다. 자신의 집에서 하녀로 일했던 패리스 목사의 조카 아비게일과 한때 불륜을 저지른 과거로 인해 죄의식 속에서 살아간다. 집단광기를 불러일으킨 아비게일의 거짓말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예를 버리고 진실의 편에 서지만,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좌절한다. 결국 댄포스를 위시한 마을 권력자들에 의해 목숨을 담보로 거짓진술의 압박이 가중되는 극한 상황에서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고 존엄성

을 지킨다.

## 아비게일

**그것이 최악이 될 진 몰라도 당신은 날 사랑하고 있어요!**

10대 소녀 아비게일의 통제되지 않는 욕망으로 인해 비극적인 마녀사냥이 벌어진다. 부모가 모두 원주민들에게 살해당한 후 삼촌인 패리스 목사네 집에 더부살이로 들어온 아비게일은 프락터 집에서 하녀로 일했다. 하지만, 프락터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고 이를 알게 된 엘리자베스에게 해고당한 뒤 마을에서 그 누구도 더 이상 아비게일에게 일을 주지 않는다. 사랑하는 남자 프락터를 차지하기 위해 친구들을 조종하여 마녀재판이 벌어지도록 한 후 엘리자베스를 고발한다.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앞뒤 가리지 않고 오로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여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간다.

## 댄포스 부지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건 당신이 아니라 바로 이 법정이에요!**

메사추세츠의 부지사로 세일럼 마을의 마녀 재판을 주재한다. 사건과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 대체로 공정하고, 열려있지만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경향이 짙다. 법의 문자적 의미에 집착하는 노회한 정치인으로 고리타분한 신과 악마라는 이분법적 사고의 틀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마녀 재판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그는 사건의 정황이나 기소된 사람들의 심증을 고려하지 않고 철저히 법적 원칙만을 고수하다가 눈앞에 놓인 증거를 보지 못하고 세일럼 마을 전체가 광기의 도가니에 빠지게 한다.

## 패리스 목사

**이 사람들을 전부 소환해 봐야 합니다. 소환해서 심문을 해봐야 합니다!**

하버드에서 공부할 정도로 높은 학식을 자랑하지만, 이기적이고 물욕이 강하다. 성직자로서의 본분을 지키기보다는 권위를 내세우고 물질을 취하는데 급급하여 마을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한다. 자신의 견해를 독단적으로 내세우고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것을 참지 못하는 성정으로 인하여 직언을 아끼지 않는 프락

터와 특히 관계가 좋지 않다. 끝까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애쓰는 헤일 목사와 달리 아비게일을 위시한 소녀들의 편에 서서 사람들을 처벌하도록 종용한다.

## 헤일 목사

**또 한 사람이 누명을 쓰기 전에 여기서 끝내십시오! 더 이상 내 양심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악마학에 대한 권위자로, 베티를 살리기 위해 그를 청한 패리스 목사의 부탁으로 세일럼 마을에 온다. 초반에는 마녀 재판을 위해 진상을 조사하는데 앞장섰다. 하지만, 점차 마을 전체가 광기에 휘말리는 것을 발견하고, 결국에는 아비게일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세일럼 사건을 통해 학식의 무용함과 생명의 존귀함을 깨닫고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고소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애쓴다.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받아들이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지만, 프락터로 하여금 거짓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스스로의 모순을 해결하지 못한 인물이다.

## 엘리자베스

**당신 뜻대로 하세요. 그렇지만 아무도 당신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세요. 이 하늘 아래에서 프락터를 심판할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프락터의 아내로 정직하고 도덕적이며 신앙심이 깊다. 욕망에 휘둘리는 아비게일과는 달리 차가울 정도로 이성적인 여인이다. 남편이 아비게일과 가졌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되어 남편에 대한 원망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남편을 깊이 사랑하고 존경한다. 아비게일의 고발로 넷째 아이를 품은 채 수감되어 죽음의 공포를 마주하게 된다. 결정적인 순간에 남편의 명예를 위해 처음으로 거짓증언을 하지만, 이것 때문에 더 큰 시련을 맞이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겪게 된다.

## 키워드

## 욕망

청교도 사회는 철저하게 교회에서 정하는 도덕적 규범을 바탕으로 돌아간다. 신에게 복종하지 않고 교회에 저항하는 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모든 사람 앞에서 수모를 당하는 가혹한 형벌뿐이다. 질서정연해보이지만 사실은 숨 막히도록 통제된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욕망, 욕정은 멀리해야 할 죄악일 뿐이다. 이렇듯 폐쇄된 집단 내에서 욕망은 비정상적, 비도덕적으로 소비될 수밖에 없다. 사회에서 소외되고 가진 것 없던 소녀, 아버지와의 욕망과 원한으로 인해 온 마을 사람들이 연루되는 마녀재판이 시작되는 상황 자체가 광적이다. 또한 이웃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땅주인을 마녀로 고발하는 푸트남이나 자신의 자식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었는데 이웃 레베카의 자식들이 잘 자라는 것에 시샘을 품고 레베카를 마녀로 고발하는 푸트남 부인, 이웃에게 돼지를 샀다가 그 돼지가 죽자 이웃을 마녀로 고발한 사람 등 개개인의 과도한 욕망은 뒤틀리고 변질된 복수가 되어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

## 광기

1692년 세일럼이라는 작은 마을 전체가 마녀사냥이라는 통제 불가능한 소용돌이에 휘말린다. 엄격한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는 대상을 막론하고 그 어떤 일탈도 허용하지 않는다. 특히나 소녀들은 이 작은 집단 내에서 어떤 권위나 발언권도 가지지 못하는 약자다. 복수 어린 욕망을 머금은 아버지가 주축이 된 소녀들의 일탈이 단초가 되어 마을전체가 마녀사냥이라는 광기에 휩싸인다. 어딘가에 홀린 것 같은 표정과 행동을 보이는 소녀들이 공연 내내 무대 위에 등장해 있으며 이러한 광적인 기운이 이어진다. 정치적, 종교적 집단 히스테리를 계기로 견고했던 사회질서에 지각변동이 생기며 광기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간다.

## 영웅

비극 속의 영웅은 기꺼이 죽음을 맞이한다. 현대 비극 속의 주인공은 선택의 기로에서 개인 자신의 가치, 이상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던진다. 고결한 자신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진실을 밝히는 프락터는 현대 비극 속 평범한 서민영웅이다. 이 작품을 번역한 김윤철 예술감독은 "그리스 비극에서는 왕이나 귀족만이 비극의 영웅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신분을 보통사람으로 격하는 시켰지만 비극의 영웅이 갖춰야 할 다른 모든 항목들을 프락터로 하여금 완벽하게 구현하게 함으로써 현대비극의 가능성을 한층 확대하

였다.”고 설명한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으로, 프락터도 처음에는 자신의 치부를 숨기고 진실을 외면하려고하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엔 위증을 거부하고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는 영웅의 모습을 보여준다.

## 작품특징

### 시의성

<시련>은 17세기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에 기반 하여 미국에서 공산주의자 색출 광풍이 불어 닥쳤던 1950년대에 미국의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가 쓴 작품이다. 밀고를 통해 타인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모습 등 1950년대의 매카시즘과 17세기의 세일럼 마녀사냥의 진행 양상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17세기 세일럼에서, 1950년대 미국에서 일어났던 사건처럼 종교적, 정치적 탄압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일은 역사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헤일 목사가 몸소 보여주는 생명의 소중함, 프락터가 죽음의 공포에 맞서 끝까지 존엄성을 지켜내는 모습 등은 우리에게도 큰 감동과 교훈을 주며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 현대 비극

<시련>은 서민 영웅의 이야기를 다룬 현대 비극이다. 주인공은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업적을 세워 역사에 기록되는 그런 영웅이 아니다. 평범한데다가 결점까지 가지고 있는 우리 중의 하나일 뿐인 인물이다. 아서 밀러는 1949년 뉴욕 타임즈에 기고한 <비극과 보통사람 *Tragedy and the Common Man*>이라는 에세이를 통해 보통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설명했다. 작가에 따르면 비극은 “인간이 완벽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장 긍정하는 형식”이다. 자기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영웅에 대한 이야기가 비극의 원리 중 하나인데, 프락터가 바로 그런 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매카시즘의 광풍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켰던 아서 밀러의 모습이 프락터의 모습과 닮아 있어 작가가 주장한 서민 영웅의 유효성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 체험형 무대



무대 위에 자리한 관객과 객석에 자리한 관객이 서로를 바라보도록 구성된 '제 의의 공간'으로써의 무대로 관객들은 대치된 가운데 극에 몰입하게 된다. 이러한 파격적인 무대는 관객들이 더욱 가까이에서 공연을 체험하게하며 생동감 넘치는 감동을 주지만, 배우들에게는 무대 위, 객석의 관객들과 호흡하며 에너지를 전달해야하는 또 하나의 숙제를 준다. 신선희 무대디자이너는 "재미있는 이야기에 열중하기 보다는 살아있는 인물들의 욕망과 순수한 양심이 단지 철학적인 관념이 아닌 일상의 생각과 감정으로써 보는 사람들의 온몸에 생생하고 아프게 느껴지기를 바라는 무대를 객석 앞으로 끌고 객석이 무대 뒤에서 에워싸게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 세일럼 마녀재판

169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세일럼 빌리지(Salem Village, 지금의 Danvers)에서 이루어진 마녀재판이다. 뉴잉글랜드 총독의 명령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에 의해 5월부터 10월까지 185명이 감옥에 갇혀 19명이 교수형을 당하는 등 모두 25명이 이 사건으로 목숨을 잃었다. 세일럼 마녀재판은 미국 역사에서 하나의 치욕스런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세일럼 출신으로 7명의 특별재판관 중 하나였던 존 호손(John Hathorne)의 후손이기도 한 나타니엘 호손(Nathaniel Hawthorne, 1804~1864)은 이 사건을 "우리 역사에서 기록하기 가장 부끄러운 치욕적인 사건"이라고 밝히고 있다. 종교 박해를 피해 신대륙에 이주하였던 이민자들이 무고한 사람들을 마녀로 몰아 죽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더욱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인간의 집단적 광기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문학 작품과 영화 등의 소재로도 널리 쓰였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 작가/연출가 소개

### 작가

아서 밀러 Arthur Miller (1915 ~ 2005)

관객과 직접 소통하고, 사람들을 합리적인 행동으로 이끌 수 있다는 사명을

가지고, 극작을 시작한 아서 밀러는 인간 삶의 내면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와 20세기 주요 역사적 사건들을 바탕으로 사회의식 강한 작품을 선보였다. 전쟁을 비판한 심리극 <모두가 나의 아들 *All My Sons*>(1947)로 뉴욕비평가상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미국 최고의 연극으로 손꼽히는 <세일즈맨의 죽음 *Death of a Salesman*>(1949)으로 풀리처상과 토니상, 뉴욕비평가상을 수상하여 미국 현대 희곡의 대표 극작가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1950년대 미국 사회 현실을 마녀 재판이라는 소재로 비판한 <시련 *The Crucible*>(1953),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미국으로 모여든 가난한 노동자들의 욕망과 갈등을 다룬 <다리에서 바라본 풍경 *A View from the Bridge*>(1955) 등의 작품을 발표했다. 이 작품의 집필 계기가 된 1950년대 미국에 불어닥친 매카시즘에 휩쓸린 밀러는 여권을 회수당하기도 했고, 1956년엔 마릴린 먼로와의 재혼으로 주목 받기도 했다.

## 주요작품

<세일즈맨의 죽음> <시련> <모두가 나의 아들> <다리에서 바라본 풍경>  
<추락 이후> 외 다수

## 연출

### 박정희

젊음에 원숙함을 더한 연출가 - 2011년 김상열연극상 심사평 中  
2000년대 이후 한국 현대연극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여성 연출가이자 실험적 연출가로 평가받는 박정희는 2001년 독일 유학 후 선보인 데뷔작 <하녀들>의 독창적인 텍스트 해석과 강렬한 연출 언어로 관객과 평단의 주목을 받았다. 우리 연극의 대표적 연출가 중 한 사람으로 자리 잡은 후 꾸준히 고전과 창작극을 오가며 활동해 온 그녀는 최근 사실주의적 희곡인 <이영녀>를 어두운 표현주의로 변환해 지금 이 시대에도 어색하지 않은 무대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성 특유의 세심한 연출력에 다양한 형식적 실험을 더해 자신만의 독특한 무대를 완성해 가고 있다.

## 주요작품

<이영녀> <가족이란 이름의 부족> <삼국유사프로젝트-꽃이다> <헤다



가블러> <죽음의 춤2> <응시> <예술하는 습관> <코뿔소의 사랑> <철로>  
<하녀들> 외 다수

## 참고

<시련> 프로그램북, 15분해설 영상강의

<https://www.nytimes.com/books/00/11/12/specials/miller-common.html>